

『델러웨이 부인』에 나타난 유목민적 욕망

성 속 현

I. 들어가는 말

20세기의 위대한 작가 버지니아 울프(Virginia Woolf, 1882~1941)는 문학을 통해 삶을 변형시키고 지배논리를 전복시키며, 끊임없이 자아를 생성해 나간다. 울프가 작품을 통해 사유했던 것은 다면적, 다층적 면모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하나의 인식의 틀로 포착되지 않는 복잡한 모습을 띄고 있다. 이는 울프의 사유가 근대적 인식망의 외부에서 사유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학을 통해 주어진 경계를 가로지르면서 새로운 삶의 방식,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토를 창조해 나감을 말한다.

철학과 문학의 경계를 허무는 들뢰즈(Gilles Deleuze)와 가타리(Felix Guattari), 그리고 울프, 이들은 오이디푸스적 구조의 한복판에서 서서 당당하게 양띠오이디푸스적 삶을 살아가는 실천가이며 동시에 탈주를 시도한 혁명가들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철학은 개념들을 창조하고, 울프의 문학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경험을 변형시켜 감응을 만들어내어 우리 스스로가 삶을 생성해 나가도록 그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들뢰즈의 철학적 사유 방식은 울프가 문학을 통해 사유했던 방식과 같은 것이다. 조용하면서도 맹렬한 삶의 의지를 지닌 울프는 가히 혁명적이고

전복적인 생성 이론을 문학에서 실천하고 있는 것이다.

울프는 주체의 무의식을 밝히고 인간의 내면적인 세계를 진지하게 탐색하고 무의식 세계에서 표출되는 의식의 흐름을 표현했다. 무의식의 흐름을 표현한 울프의 소설들은 기의를 찾아내는 학문적인 학습이 아니고 기표를 찾아내는 고도의 텍스트 연습은 더더욱 아니라고 들뢰즈와 가타리는 주장한다(*Anti-Oedipus* 107). 울프는 작품을 통해서 이미 형성되어 있는 문화나 관습에 의해 규정되는 순간, 그 주체는 이질적인 요소와 서로 섞이면서 또 다른 모습을 띠는 유동적인 주체이며, 고정되지 않은 주체임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 주체는 외부와 조우를 하면서 위반과 전복을 통해 기표가 기의가 되고, 다시 기의가 기표가 되면서 동시에 서로 미끄러지면서 그 의미가 확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생성(되기 becoming)하며 탈영토화(deterritorialization: 집을 떠나고 낯선 지역을 여행하는 것. 즉, 권력의 배치를 변환시키는 것)한다. ‘되기’는 존재(is)나 소유(have)가 아니며, 하나의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 어떤 것에서 다른 것 사이로 변하는 중간자적 존재이다. 남성적인 것을 중심에 두는 근대적 삶의 이항 대립 체계를 해체하면서 제도권 안에서 포획될 수 없는 새로운 관계의 계열들을 맺으면서 외부의 이질적인 것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다양하고 생산적인 삶의 입자들을 말한다. 즉, ‘나’라는 하나의 주체는 만나는 대상에 따라 수없이 많은 ‘나’들로 변이시키기를 추구하는 철학이다. 주체는 그 중심에 있지 않고 유랑하는 주체로서 고정된 정체성을 가지지 않으며 영원히 탈중심화되며, 자기가 지나가는 상태들에 의해 규정된다(*Anti-Oedipus* 20). 이러한 되기는 근대적이고도 남녀라는 이항대립적인 체계를 해체하면서, 그것들 사이를 서로 미끄러지면서 그 제도권 안에서 포획될 수 없는 어떤 새로운 관계의 계열들로 생산해내는 것이다. 모든 되기(동물-되기, 자연-되기, 아이-되기 등)는 남성적인 것을 해체하고 그것을 넘어서는 소수자 되기이며, 모든 되기는 여성-되기를 거치는 것이다. 오이디푸스화에 정복당하지 않는 이 분열증적인 무의식적 욕망은 기표와 기의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무의식의 세계가 언어로 구조화되어있다는 정신분석 비평 방식으로는 이러한 울프의 생성 이론을 설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구조주의적 분석에서는 생성 그 자체를 부정하거나, 적어도 생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평가절하하기 때문이다(*A Thousand Plateaus* 237).

영문학사에서 최대 작가인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이후, 최고의 작가가 되기를 꿈꾸었던 울프가 ‘연 500파운드와 자신만의 방’을 가지고 실험적인

방법으로 “끊임없이 생성하면서 온 힘을 다해 자신의 전 작품에서 구현한 것이 바로 되기(생성) 철학”(A Thousand Plateaus 278)이다. 위대한 예술가이기기를 꿈꾸며 실험적 방법으로 되기를 실천했던 울프는 문학 기계인 것이다. 이 기계는 결핍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글쓰기를 통해 언어 바깥의 세계로 개방하여 나아가 다양한 층위에서 주체의 특권을 해체하려는 그녀의 욕망이다. 이 기계는 공학적 기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식과는 무관하게 작동되는 무의식적 에너지의 유목민적 흐름을 의미한다. 이러한 흐름을 클라리서 델러웨이(Clairissa Dalloway)와 셉티머스(Septimus Warren Smith)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 둘은 사회적, 윤리적, 이데올로기적 담론이 팽배한 사회에서 나름대로 삶을 창조해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하지만 셉티머스는 탈영토화되지 못하고 함몰된 주체로, 클라리서는 삶을 창조해 가는 탈주하는 주체로 나타난다. 이 장에서는 이러한 분열증적 주체자가 어떤 모습으로 그 욕망을 펼쳐나가는지, 서로 이질적인 것과 만나 어떻게 다양한 자아들을 생성해 가는지 그 과정을 추적한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유목민적 욕망 이론은 울프의 등장인물들의 능동성과 적극성을 이해하는데 적절한 시각을 제시해 주고 있다.

II. 『델러웨이 부인』: 유목민적 주체의 욕망

영국 소설 중에서 정신분열증적 모습을 가장 많이 보여주는 작품이 『델러웨이 부인』(Mrs. Dalloway)이다. 버지니아 울프는 자신의 정신 분열증적인 모습을 클라리서에게 투영시키고 있다. 이 작품은 작가로서의 울프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 작품이면서 그녀의 광증과 창작성 사이의 관계에 대한 숙고이기도 하다(Rose 125-6).

1923년 6월 19일 일기에서 울프는 이 소설에서 “삶과 죽음, 정상과 비정상, 순간과 영원”등을 다루겠다고 밝힌 바 있다. 『델러웨이 부인』에서 두드러진 특징이 이러한 이중적인 의식이다. 주인공 클라리서의 의식 속에는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많은 사건들이 얹혀져 있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것은 삶과 죽음, 정상과 비정상, 순간과 영원, 과거와 현재, 런던과 부어턴, 화합과 해체 등 상반되고 대립되는 두 세계가 서로 넘나들면서 하나의 이미지들로 연결되는 과정이다. 이러한 상반되

는 이미지들 속에서 클라리서는 생성하며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아간다.

이 작품에 대한 정신분석적 접근은 작품을 아주 세심하게 분석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클라리서와 셉티머스의 신체에 내재되어 있는 여러 가지 양상들을 설명하는데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정신분석적 비평에서는 클라리서의 욕망이 억압되어 경험적 현실의 표면만을 드러내고, 셉티머스가 죽음으로써 클라리서의 욕망을 대신하는 환상의 세계로 평하고 있다. 이 환상의 세계는 클라리서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자유로운 현실의 영역이다. 이 욕망은 클라리서에게서는 현실적인 억압 과정이 없이 다른 장소에서, 다른 시간에 셉티머스의 죽음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관점이다. 스프라그(Claire Sprague)는 클라리서나 셉티머스의 분열된 인격체를 정신분석적 접근 방식으로 그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3-13).

그러나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론으로 본다면, 분열증적 주체들, 즉, 능동적으로 내부에서 투쟁하는 주체들인 셉티머스와 클라리서는 유목민적 주체로서 어느 하나의 틀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 각각의 무의식의 세계는 정상과 비정상, 삶과 죽음, 영원과 순간, 공포의 순간과 환희의 순간들은 서로 혼재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상반된 두 요소들은 이들의 삶 속의 일부 이면서 전체이다. 삶 속에 죽음이 있으며, 영혼 속에 순간이 있는 것이다. 기쁨과 공포도 연속적으로 혹은 동시에 이들의 삶에 다가오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서로 이질적이고 상반되는 힘을 일으키지만 균형을 이루기도 한다. 삶과 죽음, 정상과 비정상, 셉티머스의 이야기와 클라리서의 이야기들은 서로 상반되는 요소지만, 이들의 대립되는 관계들은 연속적이며 삶 속에 배열되는 느낌을 준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정신분열증분석으로 본다면, 이들은 존재(being)가 아니라 매 단계마다 변화하는(becoming) 주체들이다. 차이의 반복으로 이들은 자신들을 확인하며 의미 있는 생성의 매개적 역할을 하고자 한다. 주체의 타자적 생성과정은 계열적 이미지이며, 각 계열들 사이에는 작용하는 힘은 탈중심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클라리서와 셉티머스는 하나의 존재 속에 머물고 있는 두 양상을 재확인시켜 주는 자기 동일적 모습으로서가 아니라, 무의식의 양띠-오이디푸스적인 삶을 추구하면서, 양립할 수 없는 두 계열을 서로 생성하고 배열해내는 관계를 보여준다. 이러한 계열들 사이에 탈중심적인 힘이 작용하는 것이다. 이 힘은 클라리서로 하여금 파편화된 몸과 의식만큼의 많은 분신들을 만든다.

하루의 일탈, 파티에 필요한 꽃을 사기 위해 런던의 거리를 산책하는 클라리서를 두고 들뢰즈와 가타리는 정신분열자의 산책은 정신분석가의 의자에 누워있는 신경증환자보다 훨씬 더 나은 모델(*Anti-Oedipus* 16)이라고 한다. 클라리서는 런던이라는 도시 속에서 산책을 하며 마주치는 대상에 따라 되기를 하며, 자신의 욕망을 표출한다. 때로는 과거 속으로 들어가 부어턴에 있고, 때로는 현재의 시간 속으로 들어와 런던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녀는 런던 거리를 산책하면서 그 도시와 더불어 생성되며, 수많은 살아있는 존재를 만들어내고 있다. 따라서 들뢰즈와 가타리는 런던을 산책하는 클라리서를 분열증적 주체로 그리고 있다.

클라리서는 런던이라는 도시에서, 군중 속을, 택시들 사이를 산책한다. 델러웨이 부인은 “나는 이렇고 저래, 그는 이렇고 저래.”(*Mrs. Dalloway* 11)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는 매우 젊다고 느꼈다. 동시에 말할 수 없이 나이를 먹었다고,” 빠르게 동시에 느리고 이마 와 있고 동시에 아직 와 있지 않다고 느꼈다. “그녀는 칼 같이 만사를 꿰뚫어보고 있었다. 동시에 그녀는 바깥에서 관찰하고 있었다. [. . .] 단 하루일지언정, 산다는 것은 아주, 아주 위험한 일이야. 그녀는 항상 그렇게 느꼈던 것이다.” <이것임>은 시작도 끝도 기원도 목적도 없다. 그것은 언제나 중간에 있다. 그것은 점들이 아니라 선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것이 리즘인 것이다. (*A Thousand Plateaus* 263)

클라리서는 작품이 진전되어감에 따라 런던 도시에 살고 있는 여러 사람들을 혼합하고, 해체하고, 다시 결합시키는 인물이다. 공간적으로는 런던 도시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동시에 끌어들이고 삶과 죽음을 생각하게 하고, 시간적으로는 하루의 일탈이지만 잃어버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녀는 삶과 죽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한다.

울프는 클라리서의 의식과 무의식을 넘나들면서, 그녀가 파티를 위해 꽃을 사러 외출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파티가 끝날 때까지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자아를 생성해 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작가는 작품 속의 인물들과 함께 있기도 하고, 혹은 분리되어 자유자재로 인물들의 마음속을 드나든다. 클라리서는 그녀가 바라보는 대상에 따라 융합되기도 하고 분산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징을 스컬킨트(*Jean Skulkind*)는 울프가 “항상 유동적인 개인의 정체성”과 “끊임없는 인격의 변모를 그리고 있다”(12)고 지적한다. 따라서 주인공 클라리서는 하나의 통합된 자아를 지닌 인물이 아니라, 유목민적 주체로서의 면모를 보인다.

그녀는 비선형적인 탈주의 선을 타고 가변적인 개체군들에 의해 서로 이질적인 군들 사이를 가로질러 미끄러져 들어가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는 인물이다.

등장인물들은 접속하는 외부의 사건에 따라 주체의 내면 의식 또한 달라진다. 셉티머스는 클라리서의 자아를 형성하는 타인이면서, 클라리서 또한 자신을 발견하는 타인이다. 개인의 삶의 의미는 타인에 의해 혹은 다른 장소에 의해 완성된다. 따라서 클라리서의 무의식은 의식에 포착되지 않고 미시적이고 복수적 운동을 한다. 그녀의 무의식은 고정된 질서에 구속되지 않고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내재적인 장이기 때문이다.

어느 하나의 자아에 고정되지 않는 클라리서의 모습은 런던의 셰프츠베리 거리를 올라가는 버스에 앉아서 자신의 존재가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살아있다고 느낀다(*Mrs Dalloway* 152). 그녀가 만나는 대상에 따라 시간을 초월하여 하나의 주체는 수천, 수만의 자아를 만들어나가는 유목민적이다. 여기서 외양이나 밖으로 드러나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은 다른 것이며, 밖으로 드러난다고 다 보이는 것은 아니다. 자아는 만나는 것마다, 그녀의 자신이 되는 것이다. 하나가 여럿이 되고 여럿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첫 장면부터 울프는 한 인물 속에 내재해 있는 복합적인 자아를 그리고 있다. “델러웨이 부인은 자신이 나가서 꽃을 사와야겠다고 말했다. 루시는 따로 시켜야 할 일이 많으니까. 문짝들도 모두 들쭉에서 떼어 놓아야 하고. 이 일로 림플메이 어에서 사람이 오기로 되어 있지”(*Mrs. Dalloway* 3)라는 문장에서 울프는 객관적 서술자의 입장에서 첫 문장을 시작한다. 두 번째 문장에서는 클라리서의 내면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시제는 과거이면서 현재이기도 하다. 현재 그녀는 자신의 집에서 막 나왔지만 그녀의 정신은 과거 처녀 시절의 부어턴의 장소에 가 있는 것이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이 넘나드는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의식적이면서, 무의식적이기도 하고, 개인적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집단적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사람의 목소리이면서 또한 그 누구의 목소리도 아닌 것이다.

셉티머스는 살아있는 자연을 느끼며 자신의 육체가 살아있음을 느낀다. 하지만 그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장면에서 비행기가 만들어내는 글자를 보고 다른 사람처럼 어떤 의미도 읽어내지 못한다. 단지 자연과 교감할 뿐이다. 그는 한점으로 고정시키기 보다는 그것의 아름다움에 도취되어 미쳐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오랫동안 병상을 털고 꽃을 사기 위해 처음으로 외출하는 50대 초반의 중년

여성 클라리서는 런던 거리를 산책하면서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심을 느낀다.

그녀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상한 느낌을 가졌다. 보이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다는 것, 더 이상 결혼도 아이도 없었다. 그러나 단지 본드 거리를 사람들과 놀랍고도 장엄하게 행진한다는 것,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것, 더 이상 클라리서조차도 아니라는 것, 바로 이 리처드 델러웨이 부인이라는 것만을 느꼈다. (*Mrs Dalloway* 14)

이러한 느낌은 델러웨이 부인과 클라리서를 양분하고 있어 정체성의 분열에서 기인된 것이다. 공적인 자아인 델러웨이 부인, 사적인 자아인 클라리서로 분리됨을 그녀는 느낀다. 클라리서가 “미시 정치학 속에서 화학적이고 물질적인 반동들, 강밀도들 수준에 있는 비주체적 존재”(Flieger 41)로써 분자적 운동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욕망의 표출이다. 여성은 남성의 탈주를 도와주는 촉매로서의 분자적 여성도 아니고, 가부장제에 의해 부과된 성적 대상으로서 혹은 출산하는 역할로서의 물적인 여성도 아니다. 여성은 기능과 기관들을 부여받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의되고 인정받고자 하는 것이다(Flieger 39-41). 즉, 가부장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상적인 아내와 어머니로서 역할로 인해 여성의 삶은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클라리서는 자신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인정받지 못함에 불만을 느끼는 것이다. 그녀는 그녀 앞에 놓여 있는 “이것, 여기, 현재”를 사랑한다. 델러웨이 부인은 자신의 욕망이 타자의 욕망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지 않으며, 클라리서로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은 것이다.

클라리서는 임신을 통해 타자를 욕망한다. 가부장제에서 그녀는 이미 아이를 가질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는 존재임에 어떤 회한에 젖어 불안감을 느끼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이디푸스적 삼각형의 구도에 갇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러한 감정은 그녀의 상반된 감정이다. 아이를 가지고 싶고 또한 결혼을 갈망하는 것은 가부장적 제도에 그녀를 가두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물질 주체로 남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물질적인 주체이기를 원하면서도 비주체적 존재, 즉 유목민적 존재로서의 자신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 그녀의 상반된 욕망을 보여주는 장면이다.

그녀의 면모를 들뢰즈와 가타리의 욕망개념으로 본다면, 이 욕망은 궁극적인

결여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무의식 내에서 생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욕망은 주체의 욕망도 아니고 타자의 욕망도 아닌 그 자체인 것이다. 따라서 이 욕망은 직접적으로 사회에 투여함으로써 사회적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그로부터 또 다시 탈주를 이끌어내는 과정인 것이다. 이 주체는 언어나 지배적 논리에 의해 규정되는 순간 또 다른 탈주를 꿈꾼다. 이러한 상반된 욕망은 권력과 욕망이 동시에 존재함은 같은 원리이다. 인간은 양자간의 욕망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존재이다. 단지 우리의 욕망을 고착화시키는 편집증적 증상에서 벗어나기 위해 분열증적 욕망을 계속해서 시도할 뿐이다.

가족이라는 친자관계, 혈연관계로 이루어진 오이디푸스의 삼각형의 구조는 인간세계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면도 있지만, 그 구성원들의 다양한 욕망은 가족이라는 삼각형 속에서 때로는 무력화되어버리고 포섭되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사회는 가장으로 하여금 가족을 위하여 주어진 자리를 지키도록 강요한다. 그러나 셉티머스는 가족이라는 영토에 자신을 가두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나이가 서른 살쯤 되었고, 창백한 얼굴, 매부리코에 갈색 신발을 신었고, 낡은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의 옅은 갈색 눈은 불안한 눈초리를 띠어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이들도 불안하게 만들었다(Mrs. Dalloway 14). 그의 머리 속에, 그의 눈에, 손과 발에, 그리고 자신의 몸속에 오직 에반스(Evans)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에반스는 전쟁에서 폭탄에 맞아 죽은 그의 동생애자이다. 그의 부인 루크레시아는 결혼한 지 5년이 되었지만, 아이가 없음을 걱정한다. 하지만 셉티머스는 이 길로, 저 길로 갈 수 없는 탐욕적인 자신을 확대하며 자신을 닮은 아들을 원치 않는다(Mrs. Dalloway 89). 그가 사랑한 사람은 루크레시아가 아니라 동생애적인 연인인 에반스이다. 하지만 에반스는 지금 그의 곁에 없다. 죽고 없는 에반스를 지나치게 그리워하는 것은 무의식인 욕망에 의한 것이다. 이 욕망의 실재를 파기하려는 홈즈(Dr. Holmes) 박사와 브래드쇼(Sir William Bradshaw) 경을 울프는 짐승으로 표현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셉티머스는 무언가를 두려워하며 그의 방에 머물며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다. 그의 아내와 산책을 하지만 계속 에반스에 대한 집착으로 가득 차 있어 다른 어떤 것과도 접촉을 하지 못한다. 이러한 집착은 셉티머스는 사실 에반스가 죽었을 때 진실로 슬퍼하지 않은 것에 대한 죄의식일 수도 있다. 죄의식에 빠져 있다는 그 자체가 오이디푸스적 구조에 갇혀 있는 것이다. 이러한 셉티머스는 이성애를 정상으로 보는 문화에서 동생애에 대한 자책이 죄의식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죄의식은 부정해야 할 잃어버린 대상에 대한 것이다(Bulter 99).

라깡은 셉티머스의 무의식의 욕망을 상징계의 불완전성과 결여로 설명하지만 들뢰즈와 가타리의 생성 이론으로 볼 때, 셉티머스의 무의식 정신세계는 실재와 연결되지 못하고 단절된 모습을 지니고 있다. 셉티머스는 오직 에반스만 그리워한다. 이렇다보니 다른 대상과 접촉을 하지 못한다. 분열증적 욕망은 이질적인 것과의 접촉에서 생성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셉티머스는 이러한 지층이 파괴되어 다양한 양상으로 생성되지 못한다. 또한 그러한 접촉을 행할 능력도 그는 없는 것이다. 그는 삶을 창조하고 생성할 계기를 촉발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다 보니 그에게는 불안과 공포만이 있을 뿐이다. 심지어 그를 바라보는 사람도 불안감을 느낄 정도이다. 그는 매우 분열증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는 타인을 알아보지 못한다. 그는 철저히 혼자이며 다른 사람과는 단절만이 있을 뿐이다.

전쟁에서 죽은 에반스를 잊지 못하는 셉티머스, 30여 년 전에 헤어진 피터를 그리워하는 클라리서, 이들의 내면에는 그 대상이 부재하는 가운데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으며 그저 흘러나오는 욕망이다. 이들은 끊임없이 대상을 찾지만 결국 끝없이 대체물만을 찾는 욕망하는 생산만 있을 뿐이다. 셉티머스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켜 줄 대상으로 여겼던 에반스를 잃자 분열증적 모습을 보이게 된다. 에반스의 죽음으로 그 길이 막혀버린 것이다. 그는 에반스와 영교를 하기도 한다. 그는 이웃하는 항과 접촉을 하지 못한 채 단절된 모습을 띄게 된다. 자신이 인지하는 수많은 이미지들 속에서 어느 한 이미지에도 자신을 동일시하지 못한다. 그와 의사소통하는 경우는 유일하게도 전쟁에서 폭탄에 맞아 산산 조각이 난 전우 에반스의 영혼뿐이다. 이러한 셉티머스는 결국 자살로써 죽음으로 치닫는 함몰된 주체자이다. 하지만 클라리서는 자연과 교감을 하고 인간과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만들어나감으로써 삶을 창조해 나간다. 셉티머스와 클라리서는 탈영토화하는 분열증적 주체들이지만 인간관계에 실패한 셉티머스는 파괴의 선을 타고, 클라리서는 탈주의 선을 타는 유목민적 주체가 된다. 셉티머스가 죽음으로 치닫는 반면 클라리서는 그의 죽음을 깨닫고 오히려 삶을 창조하는 힘을 가지면서 파티 준비에 정성을 쏟아 붓는다. 셉티머스의 죽음은 삶의 한 가운데 있는 삶의 일부인 것이다. 죽음은 삶의 흐름인 것이다. 죽음 또한 하나의 삶의 존재양식인 것이다. 죽음과 삶은 서로 상반되지 않고 서로를 완성시켜 주는 배열과 생성의 관계이다.

이러한 분열증적 주체자인 셉티머스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욕체는 녹고 정신

만 남은(Mrs. Dalloway 102) 상태이다. 셉티머스는 세상과 자신 사이에 타협하지 못하고 육체적 역할을 상실한 화해되지 못한 혼돈의 상태이다. 이 혼돈의 세계는 <이다>와 <아니다>가 화해되기 어려운 기괴스럽고 변칙적인 성격을 지닌다. 이 세계는 절대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의 열린 세계로 나아가는 가능성이 있는 세계이다(Bishop 74). 그는 현실과 이상의 차이에서 오는 전쟁으로 인해 현실 상실감에 빠져 창조와 생성을 촉발하지 못하고 파괴와 불안과 공포로 결국 죽음을 맞이한다. 이러한 모습을 지닌 셉티머스를 들뢰즈와 가타리의 정신분열증적 이론으로 볼 때, 텅 빈 신체인 기관 없는 신체로 볼 수 있다. 기관 없는 신체로는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 텅 빈 기관 없는 신체, 암적인 기관 없는 신체의 세 가지 유형이 있다.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는 다양한 잠재성을 가진다는 말로서 다양한 규정성, 다양한 양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관 없는 신체를 말한다. 텅 빈 신체는 기존의 지층은 파괴되어 버렸지만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질 수 있는 질료적 흐름들, 혹은 다양한 욕망들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채워버렸기 때문에 어떤 다른 양상으로도 펼쳐질 능력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다가오는 이웃 항들에게 나누어 줄 것도 없고 다가오는 이웃 항들의 이질성을 담아내고 수용할 폭이 축소화된 신체이다. 그렇기에 그것은 함께 존재하는 것들에게 창조와 생성의 계기를 촉발하지 못하며, 역으로 그것들이 제공하는 촉발의 계기를 수용하고 이용하지 못한다. 안정과 평온이 아니라 파괴와 죽음에 임박한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기 십상이고 그런 만큼 이웃 항들에게도 불안과 공포를 주기 쉬운 신체이다. 암적인 기관 없는 신체는 텅 빈 신체와 달리 지층을 파괴하면서도 지층 안에 존재하며, 모든 기관을 유기체의 기관 안에서 스스로를 잡아먹게 된 신체고, 지층을 내부로부터 비워 가는 신체이다. 그것은 텅 빈 신체와 달리 무능력한 신체가 아니라 강력한 파괴능력을 갖고 있는 부정적인 신체이며, 이웃 항들을 끌어들여 자신의 일부로 만들면서 서로의 파괴능력을 키워가는 신체이다(이진경, 『노마디즘 1』 485). 따라서 클라리서는 다양한 양상을 가지고서 창조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이다.

셉티머스는 자신의 영혼의 독립성을 중요시하며 이것을 침해하는 정신과 의사들을 자신이 해치는 존재로 여긴다. 이를 두고 율프는 이성이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억압하는 브래드쇼에게 짐승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래야만 한다(must).” “그래야만 한다” 왜 “그래야만 하는가?” 브래드쇼가 그를 제압할 어떤 힘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무슨 권리로 브래드쇼가 내게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건가요?” 셉티머스는 물었다. (*Mrs. Dalloway* 147)

여기서도 셉티머스의 감정을 억압하는 모습을 그가 쓰는 동사 ‘해야 한다’에서 잘 알 수 있다. 이러한 강압적인 오이디푸스적 구도에 가두려는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의사에 의해 그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정신분열분석으로 본다면, 브래드쇼가 주장하는 균형과 개조는 인간의 정체성을 일정한 틀 속에 고정화시키는 것이며, 물적인 선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셉티머스는 한 순간 아내와 부부간의 대화를 나누지만 잠시 뒤, 자신의 아내가 자리를 비운 뒤 그는 극도로 불안감에 싸여 죽은 에반스와 영교를 하며 “그래, 너에게 주겠노라!”라고 외치며 필머 부인의 집 앞의 철책에 몸을 던졌다(*Mrs. Dalloway* 149). 그는 홈즈 박사에게 사회에 속해 있는 자신의 육체는 주지만 자신의 영혼은 자신의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물적인 선에 머물기를 거부한다.

이 소설에서 클라리서는 살고, 셉티머스는 죽는 것은 바로 인간관계에서 소통과 단절의 차이로 볼 수 있다. 클라리서는 그녀가 접촉하는 이질적인 인물들과 다양한 자아를 만들어 나간다. 그러나 셉티머스는 홈즈 박사의 말처럼 자기 자신이 외의 사물에는 관심을 두지 않는 인물이다. 셉티머스의 분열된 자아는 일시적으로 외부의 모든 사물들에게 신호를 보내며 합일을 이룰 때도 있다. 나무, 잎들, 줄기 등은 물론이거니와 하늘을 나는 비행기, 심지어 자동차의 경적소리, 아이들의 고함소리까지도 의미를 생성하며 자신의 육체와 자연을 연결시킨다. 하지만 셉티머스는 에반스로 그의 내면세계를 모두 채워버렸기 때문에 어떤 다른 양상으로 펼쳐나갈 능력을 상실해 버린다. 그는 에반스에게로 향한 동성애적 욕망으로 고착되어 버린다. 따라서 다가오는 이웃 항들에게 나누어 줄 것도 없고 다가오는 이웃 항들의 이질성을 수용할 여유가 없는 것이다.

정신분열 주체들은 본질적으로 자아의 통일성을 갖지 못한다. 따라서 클라리서의 욕망은 어느 대상에 고착되거나 자아라고 불리는 신체 이미지로 회귀하지 않는다(*Anti-Oedipus* 22-23).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인 클라리서는 욕망하는 기제로 환상이나 표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잠재성을 가지고서 현실적인 것을 생산한다. 그녀의 욕망은 어느 하나의 환상에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흐르는 것이다.

클라리서가 또 다른 자아를 생성해 나가는 과정은 그녀가 외출에서 돌아와 다락방으로 물러나 자신의 자아를 만들 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런던 시내를 돌아 집으로 오면서 하늘의 비행기를 본다. 비행기는 하늘 높이 솟아올랐다가는 쏜살같이 돌진해 나갔다. 비행기가 휩쓸듯이 떨어져 내려와서는 다시 위로 치솟는 것을 보고 그녀는 떨 듯이 기뻐한다. 이러한 비행의 모습은 바로 자신의 무의식의 세계와 같은 것으로 여겨진다. 한껏 부풀어 집에 들어오지만 그녀는 자신의 삶이 무언가 부족하다고 느낀다. 외출에서 돌아와 홀로 다락방으로 물러가 쉬고 있을 때 그녀는 자신에게 무언가 중심이 되는 것(*Mrs. Dalloway* 46)이 없다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자신의 집이 낡았듯 찌그러짐을 느낀다(*Mrs. Dalloway* 30).

또한 리차드와의 결혼생활에서도 무시무시한 밤에 홀로 대항해서 서 있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그녀는 리처드와의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영위하지 않고 있다. 클라리서는 다락방에 쓸쓸히 누워 회고록이나 뒤적이면서 고립된 삶을 산다. 그녀는 아직도 처녀성이 이불보마냥 달라붙어 있고 수녀의 이미지로 자신을 묘사한다. 이것은 팽팽히 당겨진 시트만큼이나 차가운 결혼생활을 나타낸다(*Mrs. Dalloway* 31).

그러나 때로는 그녀가 이미 한 아이를 낳은 어머니이지만 갑작스런 짧은 순간에 남성이 여성에게 느끼는 그런 성적욕망을 느낀다(*Mrs. Dalloway* 37). 그녀는 여성이지만 그녀의 무의식의 세계 속에는 남성성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바로 그녀의 내부에 남성성이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성에게 금지된 욕망을 사유한다는 것, 인간의 몸을 가로지르는 욕망을 사유한다는 것은 여성의 생성을 하나의 성이 아니라 수천의 미세한 성들로 열려 있게 사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여성-되기는 전 -인칭적인, 오이디푸스에 반하는 그리고 직접적으로 혁명적인 욕망들의 개방이다. 그것은 인간 역사의 이야기로부터 설명되는 욕망은 아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인간과 그의 삶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순수한 욕망이다. 욕망은, 자신의 욕망이 본질적으로 금지된 존재로서의 인간의 이미지에 의해서 억압되어 왔다.
(Colebrook 235)

금지된 욕망을 사유한다는 것은 억압의 표출이며, 클라리서의 생성이다. 이러한 클라리서의 무의식의 세계는 지각 불가능한 지대이며 분할 불가능한 지대이다. 여성성과 남성성에 의해 수많은 자아를 만들어낸다. 여성이었다가 남성이었다가

차이의 반복으로 그녀는 지각 불가능한 지대가 된다. 이러한 그녀가 지니고 있는 감수성이 받아들이는 쉼 새 없는 이미지의 홍수 속에서 그것을 생성하고 질서를 부여하여 한 점으로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다 보니 수많은 자아가 다른 이질적인 것과 접속되면서 n 개의 성으로 분할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하나의 중심으로, 하나의 다이아몬드로, 하나의 여인으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수많은 분신으로 나타난다(Mrs. Dalloway 55). 이는 바로 막다른 골목들과 오이디푸스적 삼각형 구도를 관통하여 정신 분열증적 흐름으로 저항 할 수 없는 흐름을 느끼는 것이다. 그녀가 느끼는 성적욕망은 생식기의 점액이며 너무도 점착성이 강한 리비도의 흐름이다.

남편인 리처드는 이러한 성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 클라리서에게 잠이나 푹 잘 것을 권하며, 그녀의 성적 자아를 알지 못한다(Mrs. Dalloway 98). 홈즈박사와 브래드쇼가 셉티머스를 오이디푸스적 구조에 가두려고 했듯이, 클라리서의 남편 리처드도 브래드쇼와 마찬가지로 이성을 내세워 자신의 아내를 격리시켜 아이 낳는 일을 금하는 것이다. 따라서 클라리서는 더 이상 성적 욕망을 꿈꾸는 여성도 아니고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여성도 아닌 것이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외부와의 소통뿐이다. 따라서 그녀는 런던의 거리를 산책하는 것을 좋아한다. 산책을 하면서 그녀는 이질적인 것과의 다양한 접속을 통해 다양한 되기를 한다. 그녀가 하는 산책은 이질적인 자아를 버리고 타자와의 합일점에 이르기 위한 방편이다. 런던 거리를 걸으면서 대면하는 순간들은 현실적 경험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 그녀는 때로는 자연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Mrs. Dalloway 12).

그녀는 나무의 일부가 되고, 집의 일부가 되어 자연과의 합일을 이루며 자연-되기를 하는 것이다. 자연이 되어 그들과 한 몸이 되어 먼 곳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그녀의 분산된 자아는 바라보는 대상들과 하나 되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녀는 위로, 위로 솟구쳐 자꾸만 솟구쳐 올라가는 것 같은(Mrs. Dalloway 12) 느낌을 받으며 꽃집에 들어서는 것이다. 이러한 그녀는 매순간마다 흘러간다. 이제 그녀는 역동적이고 유목민적인 주체가 된다.

클라리서는 상승의 기쁨을 느끼는 동시에 자신도 모르게 무엇인가 일어날 것 같은 불안감에 휩싸인다. 이 작품의 첫 장면에서 날아갈 것만 같은 기분, 뛰어드는 기분을 느낀다(Mrs. Dalloway 3). 하늘을 나는 듯한 느낌은 클라리서가 주관하는 파티의 절정을 이루는 상승적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바다 속으로 뛰어드는 느낌은

하강적인 움직임으로 셉티머스가 뛰어내려 자살하는 모습으로 그려진다(Miller 175). 이러한 클라리서의 상승과 하강의 대조적인 흐름은 그녀가 고정된 주체가 아니라 영토화와 탈영토화를 끊임없이 하는 분열증적 주체임을 드러내는 부분이다.

클라리서가 최면에 걸린 듯한 상황을 올프는 시적인 운율로 그리고 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일시적으로 없어지면서 그녀는 바다의 넘실거림이 역동적인 흐름으로 그녀를 리비도의 영역에 빠져들게 한다. 한순간 기쁨을 만끽하지만 또 다른 영토화가 자신을 기다린다. 브루턴 부인의 파티에 초대받지 못함에 마음의 격동을 일으키며 생명의 단축까지도 느낀다.

이 도사에서 그녀는 이것이 저것을 혹은 저것이 이것을 생산하고 그리하여 기계들을 연결시키는 과정을 느낀다. 이러한 그녀의 무의식 세계는 바로 영토화-탈영토화-재영토화의 과정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쁨과 불안감이 교차하면서 또 다시 분열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즉 분열증적 주체는 계속해서 탈영토화를 무한히 지속하는 것은 아니다. 영토화에 들어가는 순간 또 다른 탈영토선을 타게 된다.

클라리서의 삶의 리듬이 틈새 또는 침묵 쪽으로 움직인다. 이 운동은 바로 의식에서 무의식으로의 이동이며, 무의식의 존재는 그 갈라진 틈새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 틈새는 탈주의 선이며 내재적인 장이다. 이 때 클라리서가 느끼는 불안감, 공포는 억압되어 있던 그녀의 심리상태를 말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심리 상태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 보이면서도 가장 불행한 모습(*Mrs. Dalloway* 126)을 지닌 셉티머스와도 같은 것이다.

클라리서가 주관하는 파티는 파편적으로 흩어져 보이는 인물들이 모여드는 중심이다. 파티는 흩어져 있는 인물들을 모으고 서로 분리되어 있는 인간 존재들 간에 관계를 맺어주는 아주 이상적인 도구이다(*Mrs. Dalloway* 184). 클라리서는 하루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 삶을 팽창시켜 자신이 젊다고 느끼면서도 늙었다고 생각한다. 그녀의 무의식적 세계는 물리적 시계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이다. 이 물리적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으며 단지 인간의 경험에 의해서만 의미를 갖는 것이라 설명한다.

30여 년 전에 사랑했던 피터와 헤어진 클라리서의 내면에는 그 대상의 부재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채워지지 않는 욕망을 클라리서는 끊임없이 그 대체물을 찾으려 하며 지각불능의 지대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녀는 파

티로서 타자되기를 한다. 다양성을 수용하고 유사성의 제약에 의해 제한 받거나 구속받지 않는 유목민적 사유를 가지고 긍정적이고도 창조적인 파티의 장을 마련하여 삶을 창조적인 것으로 만든다. 들뢰즈와 가타리는 타자되기를 가능세계의 표현이며 긍정적 철학으로 본다. 타자되기를 욕망하는 것은 새로운 대상을 끊임 없이 찾고 그 대상과 새로운 접속을 추구하는 욕망을 꿈꾸게 되는 것이다.

클라리서가 주관하는 파티는 타자를 만나 새로운 상호간의 창조를 이루는 중간시대이다. 공감은 다양체들의 차이와 반복 속에서 되기를 시도하고 또 다른 삶을 창조할 수 있는 거대한 엔진이며 추동력이다. 이러한 창조적인 힘은 파티를 통해 생성된다.

그러나 클라리서는 이 작품이 시작되면서 오이디푸스의 구조 속에 간혀있는 자신의 무의식적 욕망에 분열이 일어남을 느낀다. 그녀는 탈영토화하지 못하고 함몰되는 것에 대해 불안함을 느낀다. 분열된 주체의 불안감은 늘 칼을 주머니 속에 넣어 다니는 인도로 간 피터 월쉬에게서 기인된 것이다. 피터는 늘 주머니에 있는 칼을 접었다 폈다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다. 허마이오니 리(Hermione Lee)는 “이 주머니칼은 공격적인 성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남근을 상징하는 것”(21)라고 지적하고 있다. 피터는 가장 남성성을 강하게 지니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클라리서가 기뻐하는 자연현상에 대해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클라리서가 피터와 결혼하지 않고 리처드와 결혼한 이유는 피터의 독재적인 면모를 때문이다. 인도에서 돌아온 후에도 여전히 그 칼을 주머니에서 꺼내어 폈다 접기를 클라리서 앞에서 계속하면서 그녀를 괴롭힌다. 이러한 장면을 보고 그녀는 밤에 잠을 자다 깨어서 놀라 손을 뻗치는 사람처럼 리처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그는 부르턴 부인의 오찬에 초대받아 부재중이다. 피터의 남성성 앞에서 그녀를 구출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다. 그녀는 영원히 혼자임을 인식한다 (Mrs. Dalloway 46-7).

그러나 파티 장에 초대받아 온 피터를 보는 순간 클라리서는 탈영역화를 시도한다. 피터와의 재회는 5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녀는 처녀 시절 때 피터와 나누는 사랑을 생각한다. 만남의 시간이 단지 30분간이지만 그녀는 사회적 관습과 일상의 억압에서 벗어나고 싶은 심정이다. 그녀는 피터와 불과 몇 해 정도 헤어져 있었지만 몇 백 년(Mrs. Dalloway 9)이나 헤어져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가부장적 질서와 법에 따라 통일된 자아로 위장해서 보일 수밖에 없는 자신을

거울을 통해 본다. 이러한 외적인 모습이 진정한 자신의 모습이 아님을 그녀는 알고 있다. 그녀는 몇 백만 번이나 똑 같은 거울을 보았지만 통일된 듯한 그 모습의 다른 면을 보게 된다(Mrs. Dalloway 56). 하지만 그녀는 내색하는 것은 아주 비열한 것이라 생각한다. 클라리서는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가진다.

파티를 여는 장면에서도 통일되지 못한 클라리서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분열된 주체는 자아의 통일성을 갖지 못한다. 죽음의 충동만큼이나 삶에 대한 그녀의 욕망은 강하다. 파티를 여는 것이 부질없는 일임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다. 이는 충실한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요구하는 아버지의 법으로 진입을 하는 것이지만 거기에 맞서 탈주의 선을 찾는 클라리서의 절실한 욕구 또한 간파할 수 없다. 여기서 파티라는 공식적인 석상에서 충실한 안주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 힘겨운 노력을 한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배필기도 하고, 결합하기도 하면서 파티를 생존의 장으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이 파티는 생존하고자 하는 욕망에 대한 즉, 탈영토화를 이루려는 그녀의 욕망에 대한 제물이 된다.

그렇다면 클라리서의 통일된 자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론으로 본다면, 인간의 몸/신체는 욕망을 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통일된 하나의 주체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클라리서는 고정된 틀을 부수고 생성하는 기계이다. 자아란 가장 미미한 진동에도 지진계처럼 민감해서 그 자아가 노출되는 경험의 유동성과 다양성만큼이나 변덕스러운 것이다. 무의식의 틈새를 비집고 나와 수천 개의 자아가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파티를 주관할 때, 그녀는 파티를 열 때마다 자기 자신이면서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다(Mrs. Dalloway 169). 이 기분은 무척 사랑스러운 것으로 전신이 어리둥절할 정도의 기쁨이지만, 역시 걸치레일 뿐이다. 훌륭한 성공이라고 해도 허탈한 느낌은 어쩔 도리가 없다. 바로 거기에 있고, 곧바로 닿을 듯하면서도, 역시 그것은 마음 바깥에 있다(Mrs. Dalloway 185). 끊임없이 분열되는 자신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그녀는 자신의 모습을 철저하게 간파하고 있다. 파티의 한 가운데 있는 자신에 대해 그녀는 황홀함을 온 몸으로 느끼지만 동시에 허탈한 감정을 숨길 수는 없는 것이다. 훌륭한 성공은 걸치레에 불과한 것이다. 생각의 흐름을 계속 쫓는 서술에서 울프가 흔히 그렇듯이, 그녀는 바깥 세계를 인지하고자 한다. 오직 인생을 사랑하므로 파티를 연다고 하면서도 특별한 이유도 없으면서 일부러 파티를 여는 그녀의 모습은 탈영역화를 이루지 못한 분열된 모습이다. 바로 거기에 있

고 달을 듯 하면서도 닿지 못하는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역할이 힘에 부치는 것을 느끼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파티를 주최하는 안주인으로서 클라리서는 하나의 기둥이나 말뚝처럼 자신을 초월하여 서 있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Mrs. Dalloway 169). 파티에 초대받아 온 손님들이 자신보다 훨씬 더 실재적이고 진실한 모습이라고 그녀는 생각한다. 여기서 말뚝처럼 서 있는 그녀가 가부장제도에서 안주인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는 강박관념에 휩싸여 있는 것은 분명 탈영토화되지 못하고 물적인 주체임을 의미한다. 그녀는 힘겹게 자신을 탈영토화하려고 탈주의 선에 있지만 바로 거기에 있고, 곧 달을 듯하면서도, 역시 그것은 마음 바깥에 있는 것이다.

클라리서는 셉티머스의 자살을 통해 오히려 그가 당한 슬픔과 상실, 죄의식과 분노를 느끼지 않고 오히려 여기에 반대되는 신비성과 고결성을 느끼게 된다(Spilka 73). 이러한 느낌을 가지게 되는 것은 클라리서가 영토화에서 탈주의 선을 모색하여 탈영토화를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삶의 저편에 있는 죽음을 위한 제물일 수 있을진대, 그녀는 삶 속에 죽음이 있음을 간파했으며 이제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음을 깨달은 것이다. 이제 그녀의 정신세계는 셉티머스의 죽음으로 인해 더 확장되고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며 희미해져가는 죽음에 대해 재인식의 기회를 가지게 된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방에 홀로 물러나 있다. 우리의 삶이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진실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은 진실이 마멸되는 삶에 대한 도전이며 진실을 전달하려는 노력으로 인식된다. 이러한 인식은 건너편에 비치는 노부인의 눈과 마주침으로써 더욱 뚜렷해진다. 거실에서 사람들이 여전히 웃고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데, 노부인이 아주 조용히 잠자리에 드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환희로 여겨진다. 이 환희는 죽음은 삶 속에 하나의 일부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 말라는 메시지로 그녀에게 전달된다.

따라서 클라리서와 셉티머스의 무의식적 정신세계는 정상과 비정상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무의식의 세계는 흔들림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론으로 볼 때 이러한 관계는 자기 동일적 모습이 아니라 무의식의 욕망으로 삶을 추구하면서 코드에 벗어나 양립할 수 없는 두 계열이 서로 생성 배열하는 관계로 여겨진다. 클라리서는 다락방으로, 셉티머스는 창문을 통한 자살로서 이들 각각은 자기만의 세계로 침잠한다. 즉 자기 보호의 행위로 클라리서는 그녀의 다락방으로 은

둔하고, 셉티머스는 그의 죽음으로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각자의 고립된 세계 속에서 의사소통은 이루어질 수 없다. 클라리서는 세상에서 한발자국 물러나 숨어든 자기만의 방과 셉티머스가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고 칩거하는 그 공간은 바로 오이디푸스적 공간이지만 분열증 주체로 하여금 그 공간들은 또 다른 삶을 생성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긍정적인 공간일 수도 있다. 그 구조는 구조로 고정되는 순간 탈주하고자 하는 상반된 요소를 지닌다.

클라리서가 침잠해 들어간 그 다락방은 깊은 고독이 있는 공간이지만, 그 공간은 깊은 고독안에서 비로소 바깥의 타자와 교감을 이룰 수 있는 곳이다. 다시 말해 한낱 외로움과 고독만이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다. 즉, 오히려 진정한 내면의 세계와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탈영토화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역설적이다. 혼자 침잠하면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자의 고요한 사색은 투명한 성찰의 순간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다. 이러한 괴리는 구조를 파괴하는 원인이면서도 주체들로 하여금 흐르는 삶을 인식하게 한다. 삶은 본성상 유동적이며 절대로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다.

클라리서가 머무는 다락방은 쓸쓸하고 외로이 홀로 지내는 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파티를 주관하고 계획을 세우는 앙띠-오이디푸스적인 공간이기도 하다. 그녀는 다락방에 있어 세상과 거리감을 두고 있지만, 동시에 파티를 통해 화합을 유지하려는 창조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속세를 떠나는 수녀처럼 다락방으로 올라가 삶의 한 가운데가 텅 비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그녀가 꿈꾸는 것은 무엇인가 중심이 되어 퍼져나가는 것이다. 즉 클라리서는 자신을 폐쇄된 자아, 감정적, 성적인 활력을 잃고 리처드와의 결혼 생활에서 그 열정을 상실한 자신을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이미지에 투자하면서 다른 몸들과의 관계를 통해 하나의 몸이 되려고 한다. 그것이 바로 클라리서가 주최하는 파티이다.

이 파티는 그녀의 탈영토화된 욕망에 의한 것이다. 로즈는 탈영토화된 욕망은 대립된 구조 속에 존재하기보다는 스피노자나 니체가 말하는 리비도적 에너지인 “내재적이고, 긍정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관계”(449)로 본다. 따라서 델러웨이 부인은 이러한 리비도적 에너지를 가지고 삶을 긍정적으로 창조해 나가는 것이다. 에반스와 기억으로 과거와 분할되지 못하고 생성이 멈춰버린 셉티머스, 그의 영혼은 클라리서의 것이다. 그의 죽음의 소식으로 인해 클라리서는 죽음에 대해 더욱 공포를 느끼지만, 건너집의 노부인의 모습에서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

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의 영혼은 클라리서의 것이 되어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흘러간다. 클라리서는 인생이 이렇게 계속되어 가는 것으로 느낀다. 이것은 영토화-탈영토화-재영토화의 과정을 통해 죽음 뒤에 오는 재생까지도 꿈꾸게 됨을 의미한다. 그녀는 “다시 태어날 수 있다면”(Mrs. Dalloway 14)이라는 말에서 재생의 가능성을 두 번씩이나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작품 속에 나타나는 파도와 같은 넘실거림은 그녀의 유목민적 속성을 극명하게 드러내 보이는 것이다. 또한 시간적 개념에서 과거와 현재로 분리된 의식 세계에서 끊임없이 현재와 과거가 넘나들고, 또한 과거의 인물들인 피터, 샬리, 헬레나 고모 등이 파티에 등장하여 흩어졌던 인간관계가 다시 연결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피터가 ‘저기에 그녀가 있었던 것’이라는 말은 그녀의 존재의 완성을 의미하기보다는 그녀가 있음으로 해서 그의 존재가 의미 지워지는 관계의 진행을 말한다. 이것은 클라리서가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탈주하여 또 다른 곳으로 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는 것이며, 영토화-탈영토화-재영토화의 순환구조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III. 나가는 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올프는 『댈러웨이 부인』에서 클라리서의 무의식의 세계를 다면체의 거울과 같이 그리고 있다. 클라리서는 과거와 현재의 시간을 초월하여 유목민적 욕망을 보이는 변화하는 주체이다. 그녀의 무의식적 욕망은 어느 한 대상에 고착되지 않고, 오이디푸스적 구조에 봉쇄되지 않으며, 리비도적 에너지를 분출하며 흘러가는 주체이다. 셉티머스와 만난 적은 없지만, 서로 대립적인 면모를 보이면서도 각각의 무의식적인 정신세계는 양립할 수 없는 두 계열인 남성성/여성성, 정상/비정상, 삶/죽음, 상승/하강 등이 서로 서로 인간의 의식 속에 침투하여 이 경계를 허물고 다양한 자아를 만들면서 생성하고 배열하는 관계로 나아간다. 클라리서는 대립되는 계열의 차이에서 반복을 통해 자신을 생성하는 매개자이다. 그녀는 이질적인 것과 접촉을 하면서 삶을 만들어간다. 그녀의 무의식 욕망은 탈주의 선을 타고 파티를 주최하면서 흩어졌던 사람과 만나는 내재의 장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그녀는 이질적인 것과 접촉을 통해 긍정적인 삶으

로 나아가는 충만한 기관 없는 신체이다.

들뢰즈와 가타리의 생성 이론으로 볼 때, 클라리서가 주관하는 파티가 끝나고 이 소설이 완결되거나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녀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피터의 말은 클라리서의 자아가 하나의 통합된 자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의 존재가 완성되기보다는 그녀의 존재가 진행 중임을 의미한다. 클라리서는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존재(being)가 아닌 되기(becoming)를 하는 분열증적 주체자임을 분명하게 드러난다.

델러웨이 부인은 처녀적 클라리서, 샬리와 동성애적 관계, 피터와 사랑하던 연인으로, 50대 중반의 리처드의 아내로 수시로 변신을 하며 다양한 자아를 만들어가는 과정 중의 주체이며, 자유자재로 존재의 본질을 바꾸어 나간다. 이 주체는 일관성이나 통일성을 지닌 존재는 아니다. 델러웨이 부인의 되기는 파티라는 대중적인 곳에서 이루어진다. 비밀이나 은둔, 즉 적막한 곳에서 숨어있거나 다락방에서 물러나 다른 사람과 접촉을 피해 그곳에서 칩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창조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그러면서 되기의 선은 노출되지 않으면서 지각 불가능한 세계로 스며들어가는 것이다.

셰티머스의 유목민적 사유는 병원이라는 구조, 조직화, 정착 등에 대한 거부를 말하며 그것들의 해체를 부르짖는 고정된 규정에 대한 모험적인 일명 게릴라 전으로 탈주를 한다. 셰티머스의 정신분열증은 구조의 해체 그 자체가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선이지만 억압이나 무시, 외면이나 배제 등에 의해 실패, 혹은 자살, 죽음으로 귀착될 위험이 있다.

셰티머스와 델러웨이부인을 들뢰즈와 가타리의 이론으로 본다면 이들은 인간 존재의 해방을 위해 압제적인 기존의 담론과 제도에서 ‘탈영토화’한다고 볼 수 있다. 탈영토화 과정은 인간의 욕망과 무의식을 제한하는 표준화된 담론을 해체하려는 작업이다.

문학을 통해 삶을 변용시키고자 하는 울프의 문학 세계는 가히 혁명적이고, 정치적이며, 수평적으로 기존의 삶의 방식을 변형, 전복시키면서 인간의 해방을 지향한다. 그녀는 문학을 통해 자신의 삶을 탈영토화로 나아가고자하는 맹렬한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울프의 대변자인 클라리서는 통일된 하나의 자아를 갖고 있지 않다. 그들은 접속하는 대상에 따라 수천, 수만 개의 자아를 생성하며 삶을 영위해 간다. 또한 그들은 항상 탈주를 시도하며, 양피 오이디푸스적 공간으로 뛰어든다.

이와 같이 인간의 욕망은 실로 그 흐름이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런 욕망의 주체들은 코드와 규범으로부터 탈주함으로써 벗어나는 듯한 환상에 빠져들다가는 다시금 다른 곳으로의 탈주를 시도한다. 인간의 무의식적 욕망은 그 자체가 다양한 흐름이며 리즘적이다. 그러므로 주체는 떠남과 머무름을 계속하며 영토화-탈영토화-재영토화를 결행한다. 따라서 울프는 삶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또 다른 가치를 부여해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경직되어 있는 사고의 틀을 깨고 서구의 이분법적인 체계를 허물면서 차이, 다른 것, 다양체를 인정하며 열린 세계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울프는 끊임없이 탈주를 감행하는 삶의 창조자이자 유목민적인 주체임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안동대)

인용문헌

- 이진경. 『노마디즘 1』. 서울: 휴머니스트, 2002.
- Colebrook, Claire. 『질 들뢰즈』. 백민정 역. 서울: 태학사, 2004.
- Butler, Judith. *The Psychic Life of Power*. Stanford: Stanford UP, 1997.
- Deleuze, Gilles and Felix Guattari. *Anti-Oedip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Robert Hurley, Mark Seem, and Helene R. Lane. London: The
Athlone P, 1984.
- _____. *A Thousand Plateaus: Capitalism and Schizophrenia*. Trans. Brian
Massumi. Minneapolis: U of Minnesota P, 1987.
- Flieger, Jerry Aline. "Becoming-Woman: Deleuze, Schreber and Molecular
Identification." *Deleuze and Feminist Theory*. Eds. Ian Buchanan and Claire
Colebrook. Edinburgh: Edinburgh UP, 2000. 38-63.
- Lee, Hermione. *Virginia Woolf's Mrs. Dalloway*.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1988.
- Miller, J. Hillis. "Mrs. Dalloway: Repetition as the Raising of the Dead." *Modern
Critical Views*. Ed. Harold Bloom. New York: Chelsea, 1986.
- Rose, Phyllis. *Woman of Letters: A Life of Virginia Woolf*. New York: Oxford UP,
1978.
- Spilka, Mark. *Virginia Woolf's Quarrel with Grieving*. Lincoln: U of Nebraska P,
1980.
- Woolf, Virginia.. *Mrs. Dalloway*. New York: Harcourt, 1953
- Woolf, Leonard. *The Diary of Virginia Woolf*. Ed. Anne Olivier Bell. London:
Hogarth, 1980.

Abstract**Nomadic Desire in *Mrs. Dalloway***

Suk-Hyun Seong

The early twentieth-century gave rise to the movements and desire to investigate the unconsciousness of humankind and deconstruct and convert the binary gender system. A number of critics have analyzed Virginia Woolf's works, using Freud's psychoanalysis and Lacan's theory. These critics investigate the unconscious of characters, texts and the author. Exploring how the subjects create their lives by themselves against the male-centered ideology, these analyses examine the voice of 'the Others' in Woolf's works. This dissertation investigates how Clarissa pursues nomadic desire to change from the oppression of the male-centered ideology in *Mrs. Dalloway*. This dissertation uses theories of Deleuze and Guattari who criticize Freud's psychoanalysis and Lacan's theory in order to trace the origin of the protagonists.

In *Mrs. Dalloway*, Clarissa and Septimus resist the dichotomous system based on patriarchy. Their desire causes no loss or lack of original objects in reviewing with psychoanalysis, but just to flow continuously as schizo-subjects in terms of Deleuze and Guattari's schizoanalysis. Clarissa is "a full body without organs" who produces the difference and the varieties, while Septimus is "an empty body without organs" who produces nothing due to the extinction of power. Their desire is not from loss or lack from original objects but unconscious and nomadic desire. This kind of desire is a desire to produce, and a desire to become. Septimus is devoid of mental capacity to understand other people because of his tenacity of holding communion with only Avans, his lover, who died in the great war. So he can not create a new life and contact other people for fear of taking the chance to become other selves. His desire ceases to exist. He feels only fear and horror. Those who

look at him even feel horror. Eventually he pursues Anti-Oedipus by committing suicide because of his frustration. Opposingly, Clarissa creates her new life and Anti-Oedipus by communicating with other people. She gathers other people, connects to each of them and creates her life positively while becoming various selves. Therefore, Septimus and Clarissa are nomadic subjects drawing a line of flight from the structure of Oedipus.

■ **Key words** : Deleuze and Guattari, schizoanalysis, *Mrs. Dalloway*, nomadic subjects, Anti-Oedipus, schizo-subjects(들뢰즈와 가타리, 정신분열증 분석, 『델러웨이 부인』, 유목민적 주체, 양띠오이디푸스, 분열증적 주체)